

내용은 불교적, 선율은 대중적

찬불가수 이진호씨 '야소다라' 이름으로 첫 음반



기타·베이스 연주 등도 하지만 이진호씨는 작곡과 보컬이 전문인 싱어송라이터다.

“어느 날 큰 종교매장 한 곳에 가봤어요. 종교음반이 200~300개 정도 있었는데 불교음반은 한 개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곳만 그럴수도 있겠지만 충격이었죠. 불교 안에서 찬불가가 많이 불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종교에 비해 찬불가수들의 활동이 많이 모자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욱 부처님 말씀을 노래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비만클리닉 원장, 내과 의사 그리고 싱어송 라이터 이진호씨(33)가 '야소다라'라는 이름으로 7월 13일 첫 음반을 발표하고 활동에 나섰다.

“불교는 굉장히 멋있고 세련되고 평화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진리인데 젊은 층이 걸모습만 보고 고리타분하고 재미없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불교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음악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첫 앨범 'Screaming Buddha' 붓다를 의지다'에 수록된 곡들은 모두 7곡, 5곡의 노래와 2곡의 반주곡이 담겼다. 이진호씨는 “포교라는 것이 불교를 믿지 않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을 때 이렇게 불교적인 진리구나 하고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작사를 했다”고 말한다.

이번 출시 음반은 특종음악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지만 모든 연령층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작업했다. 특 재즈 뉴에이지 등 다양한 음악을 크로스오버한 것도 특징이다. 불교적인 가사 내용도 많지만 종교색을 많이 걷어내고 작업했다.

“음반 작업을 같이하면 음악하는 친구들

록 등 다양한 장르 접목 '보왕삼매론' 재즈풍 노래로 인터넷사이트에 수록 예정

이 처음에는 종교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작업하다보니 가사가 좋다고 불교가 이런가 물어보면서 자신들도 나중에 불교공부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을 통해서 내가 생각한 의도대로 진행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 화계사 신도인 이진호씨는 참선 명상 등 불교수행에 관심이 많다. “사랑 노래는 많으니까 좋아하는 불교와 명상에 대해 가사에 담고 싶었다”는 그는 “이번에 발표한 '보왕삼매론'은 워낙 글이 좋아서 노래로 다듬기만 했을 뿐인데 불교경전에는 이런 글들이 너무 많다”고 밝혔다.

“음악은 내가 다른이에게 표현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다함께 즐기고 공유할 수 있는 것”이기에 “나 혼자만 즐기 말고 널리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음악을 하게 됐다”는 이진호씨. 지난해 여름부터 음반을 기획하고 노래를 만들었다. 최근 음반사 락스미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대표이사까지 맡았다.

“10년 전 흥대 인디밴드 '야소다라'로 음악활동을 시작했어요. 그 밴드 이름이 너무 애착이 가서 다시 '야소다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인디밴드 활동 이후 다시 음악을 시작하기까지 방황도 많이 했다. 대학시절 불서를 처음 접했다. 머릿속에서 천둥번개가 치는 느낌을 받았다. 불교에 빠져들어 참선과 명상에도 관심을 가졌다. 정신적 안식처를 찾아 명상을 배우러 인도에도 다녀왔다. 산사를 다니며 스님들을 찾아 말씀을 구하기도 했다. 위빠사나 호흡명상, 탄트라 명상 등 여러 명상들을 체험하며 나만의 수행법을 찾아갔다.

이러한 그의 구도행각은 타이틀 곡 '구도심'에 절절하게 표현돼 있다. “현실생활을 평범하게 살려고 했지만 도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내 체험이 담겨 있는 노래”여서 '구도심'에 더욱 애착이 간다.

'Screaming Buddha' 붓다를 의지다'는 음반 매장과 멜론 벅스 싸이월드 등 인터넷 음악사이트에 수록될 예정이다. 이진호씨는 인터넷 음악 사이트에 기록과 찬송음악인 CCM처럼 BM(불교음악) PBM(대중불교음악) 등의 코너를 만들어 불교음악들만 서비스할 수도도록 하고 싶다는 원을 밝힌다.

“좋은 불교음악이 있으면 발굴도 하고 가요리믹스 앨범도 만들고 싶어요. 불교에는 가사로 쓸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사성제' '육바라밀' 등도 음악으로 작업중입니다. 만든 노래 중에서 불교적인 색채가 좀 적어 보이는 노래들은 일반 대중가요 음반도 발표할 생각입니다.”

김지연 기자 jyang@buddhapia.com



뮤지컬 '키스 미 타이거'는 서울 뮤지컬단의 주역배우 '이경준(김현 역)' '이연경(호녀 역)'이 맡아 열연한다.

'천번의 인연, 기적 같은 만남'

삼국유사 속 호랑이 처녀이야기 뮤지컬로 '키스 미 타이거'

일연 스님 탄생 800주기를 맞은 뜻깊은 올해 <삼국유사> 속 호랑이 처녀와 인간 종각의 사랑 이야기가 뮤지컬로 만들어져 눈길을 끈다.

즐거리는 이렇다. 성원사에는 스님들의 일 뒤따라다니며 도맡아 하고 있는 만든 노래 중에서 불교적인 색채가 좀 적어 보이는 노래들은 일반 대중가요 음반도 발표할 생각입니다.”

어느날 성원사 마니악을 제거하고 락

수(澗水)를 맑게 하고 연화(炎禍)를 없애는 공덕이 있다는 보주(寶珠)를 훔치려 담을 넘은 호녀(虎女)를 우연히 도와주는 김현. 비슷한 점이 많은 호녀와 김현은 친구가 된다. 호녀는 낮에는 호랑이로 밤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산다. 마니악을 훔친 죄로 영원히 사람이 될 수 없는 벌을 받은 호녀. 사랑에 빠진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송산야화, 그 두 번째 이야기 뮤지컬 키스 미 타이거(Kiss Me, Tiger)!가 7월 18~8월 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소극장에서 관객들과 만난다. 서울시뮤지컬단(단장 유희성)의 2006 정기공연인 '키스 미 타이거'는 젊은 피를 대거 수혈한 작품이다. 연출가 장우정씨와 작곡가 김혜성씨는 '송산야화' 초연 당시 '호랑이 처녀 바람났네'를 시작으로 2002, 2003년 '송산야화'로 공연된 작품을 2006년 '송산야화 그 두 번째 이야기 키스 미 타이거'로 한 단계 더 발전시켰다.

“천 번의 인연, 기적 같은 만남, 천생연분 로맨틱 뮤지컬”을 표방하고 있는 '키스 미 타이거'는 삼국유사 가운데 '김현 감호설화'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한국적 해학성은 이루어질 수 없는 슬픈 사랑 이야기 속에 코믹함으로 승화된다. 영원한 삶의 화두 '사랑'이야기가 하늘이 맺어준 천 번의 인연에 대한 이야기로 변신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기까지의 과정과 현재 사랑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미래에 만나게 될 그 누군가까지 모두가 인연에서 비롯된다. '키스 미 타이



거'는 현대 남녀의 사랑과 옛날 옛적 연인 사이를 오가며 그들의 인연을 따라가는 액자식 구조의 이야기 방식으로 '인연'과 '천생연분'을 이야기한다.

트롯과 재즈, 비트박스, 힙합 그리고 해금까지 현대와 전통의 조화는 생생한 라이브 연주로 생동감 있게 전달된다.

연출가 장우정씨는 “'키스 미 타이거'는 사극 코미디를 지향한다”며 “옛 것을 세련되게 표현하려는 노력을 한 만큼 옛 사람의 여백과 느낌조차 현대적 속도로 표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뮤지컬 '키스 미 타이거'는 관객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피비우스의 띠처럼 끊어지지 않는 길을 들고 돌아 우리 다시 만납니다.” (02)399-1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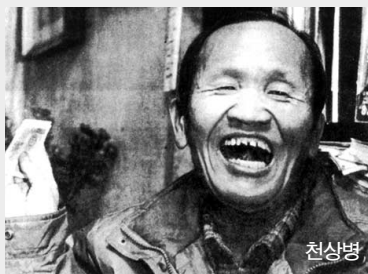
김지연 기자

'동백림 3인' 거장을 만나다

1967년 7월 8일, '동백림 사건'이 발표된 지 39년이 지난 오늘 동백림에 연루됐던 화가 이응노, 음악가 윤이상, 시인 천상병 등 위대한 예술가들을 기리는 행사가 마련된다. 7월 20일 오후 7시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동백림 3인의 거장-이응노·윤이상·천상병을 기리며' 행사가 개최된다.

기념식을 시작으로 이응노 화백의 작품 전시, 윤이상 선생의 곡 연주, 천상병 시인의 시 낭독 등이 이어진다. 이제 이 땅에는 없는 떠나간 3인의 예술가를 서대문형무소라는 역사적 공간에서 만나보자.

이번 행사는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장 김용태), 윤이상문화재단(이사장 박재규), 국회 동북아연구회 등이 공동주최한다. (02)723-0364 김지연 기자



조계종 군중특별교구와 현대불교신문 공동 캠페인
'2006 군포교 합시다'
찬불가 반주기 군법당에 보내기

우리의 불자 장병들이 활력 있고, 보람찬 병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합시다!!!
군대에서 불교를 처음 접하는 장병들이 "찬불가-하나로반주기"로 찬불가를 배워 신병생활의 기쁨과 성불의 연을 맺게 합시다.

언제 어디서나 "찬불가-하나로반주기"면 OK!
세련되고 깔끔한 디자인과 이동이 간편합니다.
법회의 설비용 영프로 사용이 가능하며, 군부대 위문 공연과 경로위안잔치 등 각종 사찰행사에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포교도 "찬불가-하나로반주기"면 OK!
어린이도 찬불가 동요와 법회 의식곡 등을 쉽게 배울 수 있고 신도님들도 찬불가 가요를 송년회, 친목회, 지역법회 등의 다양한 포교활동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야외행사에서도 "찬불가-하나로반주기"면 OK!
간편한 이동과 고출력의 웅장한 사운드로 군법당이나 사찰의 야외 법회나 행사용으로 제격입니다.

■ 제품사양

- 출력 : 100W+100W . 소비전력 : 350W
- 인력전압 : AC 220V 전용 50/60Hz
- 사이즈 : 64.5(가로) × 67(세로) × 150(높이)cm ※ 모니터포함
- 모니터 21인치(완전 평면)
- 마이크 2개(5m), 리모콘 포함
- 일반곡 23,000곡 이상 내장 ※ 찬불가 120여곡 내장

현대불교와 풍경소리가 함께하는 "찬불가-하나로반주기" 보급 캠페인에 참여합니다.
풍경소리에서 제작한 법회 의식곡 / 찬불가 가요 / 찬불가 동요 120여곡 추가 내장

찬불가 하나로반주기 구입 및 문의 **02)737-0695 (직), 2004-8219 (현대불교 영입1팀)**